

1부	EBS 2021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Page	008
1강	교과서 개념 학습 - 독서의 본질		

#강	01	#쪽	009	#번	001~003	#문항코드	
----	----	----	-----	----	---------	-------	--

[001~003] [지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독교가 지배한 사회였던 서양 중세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신을 믿어야 했고, ㉠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서양의 중세 신학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여기고 신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정의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신학을 긍정 신학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신의 전지전능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처럼 ‘~ 않는다(아니다)’ 라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이를 부정 신학이라고 한다. 이러한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긍정 신학자들과 부정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였는데, 어째서 이세계에는 악이 존재할까?’ 라는 문제이다.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악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는 분명 모순이 된다. 반대로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완전한 신의 능력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신을 변호해야 할 사명이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주어졌고,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그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존재와 작용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해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사과’가 존재한다면,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사과가 존재이고,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작용인 것이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존재와 작용의 결핍을 악이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사과라는 존재가 썩은 상태의 사과라면, 존재의 관점에서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에 대한 결핍이므로 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과정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분의 부족은 작용의 관점에서 사과에 대한 악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 아퀴나스가 말하는 악은 신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한 목적인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핍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신은 전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존재와 작용의 측면을 보았을 때에는 결핍이 있고, 이 결핍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은 왜 처음부터 존재와 작용의 측면에서 결핍이 없도록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우주의 완성이란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소멸될 것들은 사라지고 불멸적인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 가령 인간의 경우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영혼은 불멸적인 것이지만, 욕망과 감정에 휘둘려 저지른 악행은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퀴나스는 세

계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이행하며, 이 완전한 상태가 바로 신이 계획한 ‘우주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악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 역설적인 명제를 떠올릴 수 있다. 악은 오로지 선을 위해서만 또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애초에 제기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된다.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였다면 어떤 의미의 악이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신은 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신이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악을 이 세계에 안배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알 수 있게 악을 안배하였다면,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라는 개념과는 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 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지만, ㉢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즉 아퀴나스는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는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수많은 불합리와 악행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한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견해는 후대에 높이 평가받아 ㉔ 근대의 진보적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해설]

토마스 아퀴나스의 악에 관한 논증 [인문]

{해제}

이 글은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논증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양 중세의 긍정 신학과 부정 신학은 모두 악의 존재에 대해 확답을 내리지 못했다. 아퀴나스는 존재와 작용의 관점에서 악을 정의한 후, 악은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이 세계에 안배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이행하고,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완성을 향한 진보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주제}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아퀴나스의 논증

{구성}

- 1문단: 긍정 신학과 부정 신학이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악의 존재 인정 여부
- 2문단: 존재와 작용의 관점에서 악을 정의한 아퀴나스
- 3문단: 우주의 완성을 위해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아퀴나스
- 4문단: 신이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5문단: 신이 불완전

#강	01	#쪽	010	#번	001	#문항코드	20002-0001
----	----	----	-----	----	-----	-------	------------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표, 틀리는 것은 표 해 보자.

㉠	1문단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하고 그중 한 관점의 서술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 X)
㉡	2문단에서는 특정한 철학자의 견해와 관련한 예시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X)
㉢	3문단에서는 서로 다른 이론을 소개한 후,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X)
㉣	4문단에서는 기존의 문제점과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를 나열하고 있다. (○, X)
㉤	5문단에서는 특정한 철학자의 견해가 후대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 X)

#강	01	#쪽	011	#번	002	#문항코드	20002-0002
----	----	----	-----	----	-----	-------	------------

[문제]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중세 서양의 신학에서 반박할 수 없는 보편적 믿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 신이 창조한 세계에 실재하는 존재와 작용의 결핍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악을 만들었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 인간은 신과 달리 세계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 인간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점점 발전하고 바람직한 결과로 나아간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군.

#강	01	#쪽	011	#번	003	#문항코드	20002-0003
----	----	----	-----	----	-----	-------	------------

[문제]

윗글과 <보기>를 읽고 ‘아퀴나스’와 ‘주자’의 선악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 보자.

< 보 기 >

주자(朱子)는 인간의 현실 세계에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선과 악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원적 대립 관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선과 악의 근원을 탐구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악이 발생하는지 이해한 후, 선의 당위성과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악을 제거하고 선을 온전하게 하는 궁극의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 아퀴나스와 주자는 모두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이/가 공존한다고 보았군.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 도달하고자 하는 완전무결한 세계와 궁극의 단계에서는 (㉡)만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군.

- ㉠: _____
- ㉡: _____

<정답과 해설>

#1

[정답/모범답안]

해설참조

[해설]

{정답}

- ㉠ ○
- ㉡ ○
- ㉢ ×
- ㉣ ×
- ㉤ ○

{해석}

- ㉠ 긍정 신학적 관점과 부정 신학적 관점을 구분하고, ‘~ 않는다(아니다)’로 신을 규정하는 부정 신학적 관점의 서술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 ㉡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과 관련한 사과의 예시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 3문단에서는 우주의 완성과 관련해 소멸적인 것들과 불멸적인 것들을 대비해 설명하고 있을 뿐, 서로 다른 이론을 소개하지 않았다. 이론들을 절충한 대안도 찾을 수 없다.
- ㉣ ‘여기에서 우리는 애초에 제기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된다.’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반복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을 나열하지도 않았다.
- ㉤ 5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가 후대에 높은 평가를 받아 근대의 진보적 역사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고 있다.

#2

[정답/모범답안]

3

[해설]

{해석}

③ 마지막 문단의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신이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악을 이 세계에 안배했다고 보았다.’를 통해 ‘악’은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을 통해 긍정 신학적 관점과 부정 신학적 관점이 공통적으로 신을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존재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부정 신학적 관점은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을 ‘~ 않는다(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서술 방식으로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2문단의 ‘그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존재와 작용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즉 신은 전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존재와 작용의 측면을 보았을 때에는 결핍이 있고’ 등을 통해 ‘악’을 신이 창조한 세계에 실재하는 존재와 작용의 결핍으로 볼 수 있다.

④ ㉠ 앞의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지만’과 ㉡ 뒤의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마지막 문단의 ‘즉 아퀴나스는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는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수많은 불합리와 악행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한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3

[정답/모범답안]

해설참조

[해설]

{정답}

㉠: 선과 악(선악)

㉡: 선

{해석}

㉠ 마지막 문단의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알 수 있게 악을 안배하였다면,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인정해야 한다.’ 와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를 통해 아퀴나스가 인간이 사는 세계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보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보기>의 ‘주자(朱子)는 인간의 현실 세계에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고 보았다.’ 를 통해 주자도 인간이 사는 세계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마지막 문단에서 아퀴나스가 인간이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완전무결한 세계인 유토피아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악을 선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만 남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보기>의 ‘선의 당위성과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악을 제거하고 선을 온전하게 하는 궁극의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를 통해 주자도 궁극의 단계에서는 선만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